

“내일은 탄핵 심판의 날” 광주서 순천시 시국촛불 압박

탄핵버스 타고 ‘국회 포위집회’ 참석해 가결 촉구

지역민들 “부결 땀 새누리당 해체 총력투쟁 나설 것”

“국민의 명령이다! 새누리당은 탄핵에 동참하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7일, 광주·전남 시·도민들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탄핵안 동참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었다. 지역 시민사회는 9일에도 예정된 국회 탄핵안이 가결되는 순간까지 지역민의 힘을 모아 총력 투쟁을 펼치고, 부결될 경우 ‘햇볕’을 들고 새누리당 해체에 앞장설 계획이다.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광주시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5시40분께 광주시 북구 충효동 새누리당 광주시당 앞에서 시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누

리당의 탄핵 찬성 표결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광주시민운동본부는 “국정농단 ‘헌정유린’의 부역자이자 공범인 새누리당은 석고대죄의 심정으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반드시 표결에 참여해 박근혜를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탄핵에 불참하거나 부결될 경우 국민의 힘으로 새누리당은 해체의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근혜정권 퇴진 전남운동본부’도 이날 오후 6시 순천 조례동 NC백화점 앞에서 도민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탄핵 찬성 표결을 요구했다. 도민

들은 촛불을 들고 순천 이정현 의원 사무실까지 행진을 펼치기도 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9일까지 총력 투쟁이 펼쳐진다. 같은 날 새벽 5시 광주에서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는 탄핵버스가 출발한다. 이들은 여의도에서 열리는 ‘국회 포위집회’에 참석, 새누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 또 오후 2시 새누리당 광주시당 앞에서 국회 폐회까지 규탄 집회를, 같은 날 오후 6시 금남로에서 긴급시국촛불대회를 개최한다. 탄핵안이 부결되면 새누리당 광주시당까지 행진 후 강력한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다.

전남운동본부도 8~9일 순천 연향동 국민운동 앞 광장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고 국회의 탄핵안 가결을 촉구한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도 8~9일 국회 본관 앞 광장에서 유권자 시국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회와 새

누리당에 대한 압박을 시작한다.

이들은 8일 오후 7~11시와 9일 오후 1시30분부터 본회의 종료시까지 광장을 시민에게 개방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회 광장 개방을 위해 온라인에서 ‘열려라 국회! 국회를 시민 품으로’를 제목으로 한 서명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10일 광주·전남은 물론 전국에서 동시에 열리는 7차 주말촛불집회는 탄핵안 가결 여부에 상관없이 진행된다. 광주시민운동본부는 “만약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격화될 촛불 민심은 햇볕이 되어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탄핵안이 가결돼도 헌법재판소에 대한 투쟁 운동, 세월호, 고(故) 백남기 농민, 위안부 합인, 국정교과서 등 비정상으로 자행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시청·남구청도 퇴진 촉구 현수막

동·북구 전공노 오늘 걸기로

광주시 서구·광산구청에 공무원노조가 내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현수막이 광주시청에 이어 전체 구청으로 확산할 조짐이다.

7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등에 따르면 광주시와 남구, 서구, 광산구청사 외벽에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다. 광주시 노조는

이날 오후 3시께 청사 현관 옆에 가로 3.3m, 세로 9m 크기의 현수막을 내걸고, 광산구는 지난 4일, 서구는 5일 노조 주도로 현수막이 게시됐다.

동구와 북구도 8일까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청사에 내걸 예정이라고 전공노 광주본부 측은 전했다.

이와 관련 서구청 등 광주 일부 구청은 노조 측이 내건 대통령 퇴진 촉구 현수막을 수시로 뜯어내며 노조 측과 대립하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가능성과 행정자치부 측이 징계를 예고하는 전화를 걸어오는 등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공노 광주본부 관계자는 “공무원의 복종 대상은 각종 비위 의혹이 드러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며 “국민의 정당한 요구에 부응하는 공무원 노조의 행동에 대해 징계 운운하는 행정자치부도 국정 수행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대통령에게 충성할 게 아니라 민심을 직시하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청에 내걸린 퇴진 촉구 현수막.

나주서 두번째 AI 발생...오리 120마리 폐사

철새에 의한 감염 추정 속

농장 간 감염 가능성 조사

전국 최대 오리 사육지인 나주에서 두번째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전남도는 철새에 의한 감염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농장 간 감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나주시 동강면 한씨오리 농장에서 오리 120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간이 키트조사를 한 결과 AI 양성 반응을 보였다. 폐사체 20건에 대해 조사에서 7건이 AI 양성 반응을 보인 것이다. 전남도는 동물위생시험소 실험실 검사를 통해 AI 감염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해당 농장은 철새도래지인 영산강과 가깝고 AI가 이미 발생한 무안군 일부를 육용오리농장과도 비교적 가까운 7~8km 정도의 거리에 자리하고 있다. 전남도는 일단 철새에 의한 감염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발생지 주변 10km 방역대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된 점으로 미뤄 농장 간 감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농장 간 감염이 본격화하면 확산세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전남도는 우선 실험실 검사에서 H5형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해당 농장에서 키우는 오리 1만6380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하고 농립축산감역본부에 정확한 바이러스 유형과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해당 농장 반경 500m 이내에 다른 가금

류 농장은 다행히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반경 3km 이내 10 농가에서 도종닭 330여 마리, 2 농가에서 오리 80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 또 3~10km 거리에는 103 농가에서 닭 333만 마리, 63 농가에서 오리 70만9000마리 등 166 농가에서 닭과 오리 403만 마리를 키우는 밀집 사육지다.



가로수를 보호하라 7일 광주시 북구 공원녹지와 직원들이 광주역 일대 보행성 가로화단에서 겨울철 제설제로 인한 가로수

전남도는 나주 공산면에서 AI 확진 판정이 나온 뒤 이 농장에서 생산된 알에서 부화한 새끼 오리들을 일식한 전남 37개 농가에 대해 감염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28 농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추가로 이상징후는 없었으며, 9 농가에서는 시료 채취를 끝내고 검사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공산

면 농장 반경 10km 이내 농장들을 임상 관찰한 결과에서도 폐사, 산란율 감소 등이상은 없었다. 나주는 30 농가에서 151만 마리 산란계, 94 농가에서 363만7000여 마리 육계, 100 농가에서 166만8000여 마리 오리를 키우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전일빌딩 5·18 총탄 흔적 20여곳 확인

광주시 금남로 전일빌딩에서 5·18 민중항쟁 당시 생긴 것으로 보이는 계엄군의 총탄 흔적이 일부 확인됐다.

7일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전일빌딩 건물 외벽에서 계엄군 총탄 흔적을 찾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가 지금까지 두 차례 이뤄졌다.

지난 9월 중순에 이뤄진 1차 조사에서 10여 군데, 지난달 15~16일 시행한 2차 조사에서도 건물 외벽 10여 군데에서 총탄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발견됐다.

총탄 흔적은 옛 전남도청 자리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바라보는 전일빌딩의 측면과 금남로 맞은편인 건물 후면에서 주로 발견됐다고 5·18 재단은 전했다. 건물 측면은 지난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

총탄이 쏟아졌다는 목격담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흔적이 발견된 곳에 대한 정밀분석을 위해 오는 13~14일 보강조사를 한 뒤 이달 말쯤 공식 보고서를 광주시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흔적이 총탄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면 5·18 관련 단체들과 건물 소유주인 광주도시공사 등과 함께 보존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68년 12월 7층 건물로 준공된 전일빌딩은 4차례 증·개축을 거쳐 10층 규모인 지금 모습을 갖췄다. 5·18 당시에는 옛 전남도청 광장, 분수대에서 쫓겨온 시민이 계엄군을 피해 몸을 숨겼던 곳이기도 하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중국산 도자기 국보급 속여 판 경찰 4년형

광주지법, 공범은 2년 선고

중국산 도자기를 국보급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경찰서 장모(43) 경사에게 징역 4년을, 공범 정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입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진품이라고 주장하지만 도자기가 진품인지 가품인지의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장 경사는 2014~2015년 사이 1억6300만원을 주고 지인으로부터 구매한 중국도

자기 10점을 다른 사람 소유의 도자기인 것처럼 내세워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에게 10배가 넘는 10억8000만원 상당을 받고 되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장씨는 ‘국보급 수준이다. 경찰관인 나를 믿어라’ 등의 말로 사업가에게 해당 도자기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도자기들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장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해당 도자기들이 진품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다. 혹시 진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은 진품으로 알고 있었다. 또 피해자(사업가) 스스로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실적 저조하다며 종업원 방망이 폭행·급여 착취

‘갑질’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 구속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판매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을 방망이로 폭행하고 급여를 착취한 혐의(상습폭행, 근로기준법 위반)로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 강모(25)씨를 구속했다

고용주인 박씨는 강씨와 함께 지난 10월 임금 문제로 그만둔 종업원 4명이 노동청에 자신들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노란 메신저에 단체방을 개설해 두 차례에 걸쳐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다. 박씨는 메신저로 “고소해, 돈 많은 놈이 이겨, 와서 무릎 꿇고 빌어, 복수해줄게”라며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씨는 지난 10월 종업원 한 명과 술을 마시다가 가족 허리띠로 종업원을 수차례 폭행하고 업주 강씨와 함께 경쟁 대리점 업주 협박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중호 광역수사대장은 “어린 종업원들을 고용하는 휴대전화 판매점들의 유사 횡포 사례를 지속해서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여수시 간부 공무원도 공사 관련 수뢰 구속

관급공사 수주 비리 수사 확대

장흥군에 이어 여수시 간부 공무원도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이 관급공사 수주 비리 수사를 확대하면서 이번엔 또 어느 지자체에서 사건이 불거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7일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여수시 공무원 김모(57·5급)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7월 회계업무를 담당하며 브로커에게 편의 제공을 대가로 1000

만원을 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김씨가 재직 중인 여수 시내 모 공사사무소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일에도 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남 장흥군 비서실장을 구속했다.

한편 주철현 여수시장은 이날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입장’이라는 사과문을 통해 “자재구매 등 계약체결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이 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보험금 욕심에 교사 출신 50대 위장 교통사고 냈다 ‘들뿔’

○...고교 교사 출신 50대 남성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내려고 위장 교통사고를 냈다가 사고 장면을 수상히 여긴 운전자와 보험사 측 제보로 범행이 탄로.

○...7일 광주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최모(58)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께 광주시 남구 방림동 주택 골목길에서 A(66)씨가 몰던 차량에 고의로 왼쪽 어깨를 부딪힌 뒤 병원에 누워 운전자 보험사

측에 치료비와 보상비를 요구한 혐의. ○...서행하던 차량에 어설픔게 뛰어드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토대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힌 최씨는 “교사로 퇴직해 매월 280만원 정도의 연금이 나오지만 취업준비 중인 아들 딸에게 송금하면 남는 게 없다. 교통사고를 당해 임원하면 50만원 정도 나온다는 말을 듣고 겁이 났지만 차로 뛰어들었다”며 선처를 호소.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28
해질녘 13:22

해강 17:20
달님 00:32

건강관리주의

오후부터 흐려져 비 또는 눈이 오겠다.

◇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음	0/10	보성	맑음	-3/10
목포	맑음	1/11	순천	맑음	0/12
여수	맑음	4/11	영광	맑음	-2/9
나주	맑음	-3/10	진도	맑음	-1/12
완도	맑음	2/11	전주	차차흐림	-1/9
구례	맑음	-3/10	군산	차차흐림	-1/9
강진	맑음	-2/12	남원	맑음	-4/8
해남	맑음	-2/12	축산도	맑음	6/11
장성	맑음	-2/9			

◇ 바다 날씨

		오전	파고(m)	풍향	파고(m)	오후
서해	앞바다	남서~서	0.5	남서~서	1.0~2.0	
	남부	남서~서	0.5~1.5	남서~서	1.5~3.0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1.0	남서~서	1.0~2.0	
	남부	북서~북	1.0~1.5	남서~서	1.5~2.5	
	면바다(동)	북서~북	1.0~2.0	남서~서	1.5~2.5	
	면바다(서)	북서~북	1.0~2.0	남서~서	1.5~2.5	

◇ 생활지수

높음	☀
높음	☀
감기	🌧
관심	🌧
체감온도	🌡

◇ 주간 날씨

9(금)	10(토)	11(일)	12(월)	13(화)	14(수)	15(목)
☀	☀	☀	☁	☀	☀	☀
5/8	-2/7	-2/7	-1/9	1/8	-2/6	-2/7